



금융개방에 대한 케인즈의 견해와 한미 FTA*

河 駿 垆 (研究委員, 3705-6348)

케인즈는 금융개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이는 후대의 지식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가 후퇴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시점에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안전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로 유출되던 자본을 국내로 돌려 국내금리를 낮추면서,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자본이동으로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고립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지 고립주의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21세기 한국이 직면한 환경은 세계화의 후퇴가 아니라 확대이며 자본유출-고금리보다는 자본유입-저금리여서 케인즈의 처방이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그가 우려한 국제자본의 단기이윤추구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FTA 등 금융개방 추진 과정에서는 국경간거래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 급격한 단기적 자금유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세이프가드도 검토해볼 만하다.

케인즈는 1933년 「국민경제의 자립」(National Self-Sufficiency)이라는 글에서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 - 이런 것들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건은 가능하면 국산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은 국내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후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경제개방, 특히 금융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케인즈는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 - 이런 것들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건은 가능하면 국산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은 국내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뒷받침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혹자는 현대의 무역협정들이 케인즈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국산품을 줄이고 지적재산권을 통해 사상·지식·예술을 덜 국제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금융을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한다(Daly, 1994).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 경제를 지키고자 했던 케인즈가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과 정반대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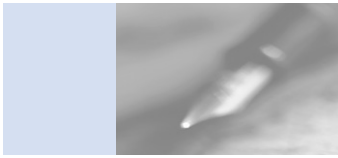
1930년대 - 세계화의 후퇴와 저금리의 필요성

그러면 케인즈는 왜 금융개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게 되었는가? 케인즈의 문제제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30년대 당시 세계경제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는 19세기 중반 이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는 엄청난 세계화의 파고에 휩싸여 있었으나, 1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무역이 후퇴를 거듭하여 1914년 8%에 이르렀던 세계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이 1950년에 6%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즉, 1차 세계 대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기간은 세계화의 첫 번째 파고가 후퇴하는 기간이었으며, 동시에 케인즈의 주요 저작들이 발표된 시기이기도 했다.

세계화가 후퇴하고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했으며, 이를 외부의 교란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립주의 경제 노선이라는 수단이 필요했다.

당시 자본주의 경제는 대공황과 함께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었으며,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전체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9세기형 자유방임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실험들이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자립’ 또는 고립주의 경제 노선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다만, 케인즈는 고립주의 경제 노선이 그 자체로서 목적(ideal)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케인즈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저금리가 필요한데 금융개방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당시 영국은 자본이 풍부하였으므로 고립주의 경제 노선을 통해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릴 경우 금리가 국제수준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시 세계의 은행(bankers to the world)으로 불리던 영국은 20세기초 1차대전 전까지 전세계 해외투자 총계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1911년에는 영국 총저축의 반 이상 또는 GDP의 8.7%가 해외에 투자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외 지향적이었던 영국경제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국내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당시 영국은 자본이 풍부하여 고립주의를 통해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릴 경우 금리가 쉽게 낮아짐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소유 · 경영의 원격성과 단기이윤 추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케인즈는, 자본의 국제화로 인해 한 나라의 자본가가 다른 나라의 기업 소유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소유권과 실제 기업경영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자본소유자가 소유 기업의 경영보다는 단기적 이윤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본소유자가 단기 수익성만을 좇아 투자자금을 전세계 이곳저곳으로 옮기게 되면 잠시 소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도 책임도 필요없게 될 것인데, 이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자체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다.

자본소유자가 단기 수익성만을 좇아 투자자금을 전세계 이곳저곳으로 옮기게 되면 잠시 소유하는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책임도 필요없게 되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가 후퇴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시점에 자본주의 체제의 안전한 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금리를 낮추면서,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자본이동으로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고립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조주의에 대한 경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케인즈는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국경제가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지만 어떤 불변의 원칙을 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rhetoric)는 다소 거칠고 과장되어도 좋지만 일단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그 동안 수사에서 무시되었던 비용들을 1페니까지도 따져야 한다.

우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케인즈가 ‘국민경제의 자립’ 뒷부분에서 자신의 견해가 교조화되는 어리석음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rhetoric)는 다소 거칠고 과장되어도 좋지만 일단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시를 읊을 권리(poetic licence)는 없어지게 되며, 그 대신 그 동안 수사에서 무시되었던 비용들을 1페니까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케인즈는 당시 금융개방의 비용이 금융개방의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영국사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자유방임주의 무역사상에 과감한 문제제기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영국과 21세기 한국의 차이점 및 유사점

그러면 21세기초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케인즈의 금융개방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케인즈의 고립주의를 뒷받침한 근거들을 하나씩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보자.

먼저 세계화의 흐름을 보면, 케인즈가 집필활동을 하던 시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진행되었던 1차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던 시기였던 반면, 지금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2차 세계화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시기이다. 1950년에 6% 아래였던 세계 GDP 대비 수출액 비율은 현재 20% 정도로 급상승했으며, 이 추세가 앞으로 반전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1990년대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 외부의 위협요소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개방과 저금리의 관계를 보면, 케인즈 당시의 영국은 세계의 은행으로서 자본이 풍부했으므로 금융개방이 자본유출과 고금리를 의미하였던 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개방이 자본유출과 고금리보다는 자본유입과 저금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유입은 쉽지만 유출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한편 국제자본의 단기이윤추구 문제는 케인즈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케인즈 당시에는 영국의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



이 외국자본의 영국 진출보다 더 큰 문제였던 반면에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단기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자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에 뿌리내리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점들을 종합해 보면, 세계화의 방향과 저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21세기초 한국경제가 1930년대 영국에서 제기된 고립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제자본의 단기이윤추구 문제는 아직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1세기초 한국경제가 1930년대 영국의 고립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근거는 없으나 국제자본의 단기이윤추구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미 FTA 금융협상과 관련한 시사점

케인즈의 견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미 FTA 금융협상과 관련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국제자본의 단기적 유출입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자본이 국내에서 현지화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의 단기적 유출입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자본이 국내에서 현지화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국제무역 등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제자본의 단기적인 유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세이프가드가 자본이동 제한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인다면 당사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폭넓게 개방하되 가급적 국내법에 따라 현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경우 국내법규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국내 감독당국이 서비스제공 법인형태 결정권 및 신상품 인가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 금융개방은 척사의 대상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1전이라도 이득을 늘릴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볼 대상이다. **KIF**